



즉시 배포용: 2019년 8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시행  
첫해가 성공적이었다고 발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시행 첫해 8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았고 128,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이용*

*뉴욕주는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시행 첫해 전반적 참여율, 유급 육아휴직  
사용 남성 비율,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한 노동자 비율 등에서 다른 주를 압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상징적인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로 인해 뉴욕주 전역의 8백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보호받으며 유급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주 전역에서 2018년 128,000명 이상이 혜택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인 8백만 명 중, 2백만 명 이상이 과거 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 Medical Leave Act)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주의 유급 돌봄휴가 시행 첫해와 비교했을 때, 뉴욕주는 전체 참여율,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남성 사용률,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한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사용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근로자들은 새로 태어난 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아내나 파트너, 자녀 또는 부모가 해외 군대로 파견되었을 때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또는 심각한 신체 또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 자리를 잃는 것과 자녀의 탄생 순간을 놓치거나 아픈 가족을 간호하는 것 사이에서 누구도 어느 한 쪽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급 돌봄휴가 제도를 제정했습니다. 시행 첫해, 우리는 이미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이 중요한 혜택을 활용했고, 수백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보호받으면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성과는 다시 한번 우리의 노력이 진보적인 정책을 제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직장 and 집에서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도 생계를 위해 돈을 버는 것과 자녀 또는 아픈 부모를 돌보는 것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주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뉴욕의 돌봄휴가 프로그램은 다른 주들이 따를 수 있는 모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광범위한 프로그램은 근면히 일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뉴욕주 유급 돌봄휴가(New York Paid Family Leave) 시행 첫해의 종합 보고서는 [2018년 유급 돌봄휴가 검토\(Paid Family Leave 2018 Year in Review\)](#)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해에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를 사용한 근로자의 대부분은 연간 소득이 60,000 달러 이하이며, 가장 많이 사용한 그룹의 연간 소득은 40,000 달러 이하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올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근로 중인 뉴욕 주민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보장받는 유급 휴가를 최대 10주간, 평균 주급의 55 퍼센트를 받으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의 50 퍼센트를 받으며 8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2018년에 비해 혜택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2019년 2월 3일 유급 돌봄휴가 법(Paid Family Leave Law)에서 "심각한 건강 문제(serious health condition)"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장기 또는 조직 기증과 연관된 수술 준비 및 회복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뉴욕 유급 돌봄휴가(New York Paid Family Leave) 규정에 따라 기증자는 자격을 갖춘 가족의 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혜택은 2021년까지 계속 늘어납니다 이 시점에 근로자들은 평균 주급의 67 퍼센트를 받으며 최대 12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 급여는 뉴욕주 평균 임금(Statewide Average Weekly Wage)의 67 퍼센트로 제한됩니다.

유급 돌봄휴가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빈곤 퇴치 단체인 지역사회 서비스 소사이어티(**Community Service Society**)의 Nancy Rankin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시행 첫해의 통계 발표와 함께, 우리는 이 제도가 뉴욕 주민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주정부로서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보장하는 12주간의 휴가를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은 돌아갈 직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소득 60,000 달러 이하의 뉴욕 주민입니다. 그리고 30 퍼센트 이상으로, 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연간 소득이 40,000 달러 이하였습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의 Beth Finkel 뉴욕주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중 간호하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자리와 가족 간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뉴욕의 강력한 유급 돌봄휴가 법(Paid Family Leave Law)은 가족을 간호하며, 가족과 직장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지원하는 이 법안은 가족을 간호하는 사람들을 지원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세금 지원을 받는, 멀리 떨어진 곳의 값비싼 간호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욕 주민 열에 아홉이 원하는 일입니다.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가 제공하는 지원은 가족을 돌보는 뉴욕 주민 약 260만 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간호는 연간 310억 달러가 넘는 가치를 가지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뉴욕시 참전용사 연합(NYC Veterans Alliance)의 창립자이자 미군 참전용사인 Kristen L. Rous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역(Active Duty), 예비군(Reserve), 국가방위군(National Guard) 가족들은 그들의 가족이 우리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배치되었을 때, 그리고 관심과 간호가 필요한 상처를 입고 돌아온 가족을 간호할 때, 반드시 곁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로 혜택을 받는 모든 군인 및 참전용사 가족은 그들이 얼마나 우리 주와 나라에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첫해는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인 및 참전용사 가족이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를 사용하며 그들이 이 중요한 혜택이 제공하는 지원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베러 밸런스(A Better Balance)의 공동 설립자 겸 공동대표인 Sherry Leiwant와 Dina Baks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유급 돌봄휴가 법(Paid Family Leave Law)은 어떠한 근로자도 가족 간호와 생계유지 사이에서 결정을 강요받아서 안된다는 투쟁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의 핫라인으로 우리에게 연락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뉴욕 주민을 위해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치가 이 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어 기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뉴욕이 계속 진보적인 근로 정책을 통화하고 성공적으로 제정하여 선도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뉴욕주의 이러한 뉴스가 다른 주 및 연방 정부를 고무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 돌봄휴가 및 의료 휴가 제도를 제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뉴욕 유급 휴가 연합(New York Paid Leave Coalition)의 전 상임이사인 Donna Dol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혁신적인 유급 돌봄휴가 법(Paid Family Leave Law)의 고무적인 첫해 결과를 비롯해, 뉴욕주 전역의 아이를 출산한 부모와 가족을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들은 인생의 중요한 기간에 엄청난 재정적 안정 및 일자리 보호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도의 실행을 굳건히 이끈 Cuomo 주지사를 비롯해, 강력한 새로운 혜택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지역사회를 연결해주신 수십 개 주정부 기관 및 뉴욕주 전역의 지지자와 단체 네트워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공 고용자 또한 적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근 및 비상근 근무자 모두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를 이용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당 20 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는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26주 연속 근무한 이후에는 이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주당 20 시간 이하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자는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175일 근무한 이후에는 이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권자 또는 이민자 지위 모두 직원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뉴욕 유급 돌봄휴가(New York Paid Family Leave)를 비롯한 고용주 및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상세 정보는 유급 돌봄휴가(Paid Family Leave) 웹사이트, [PaidFamilyLeave.ny.gov](http://PaidFamilyLeave.n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이 있으시면 (844) 337-6303번으로 유급 가족 휴가 (Paid Family Leave) 상담원과 통화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